

자본투자 감축으로 경영 효율화!

미국 화학기업 보수·IT투자 선회 ... 생산확대 보다는 감축 무게

자본투자를 감축하는 것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고, 보수 및 IT 개발에 투자되면 생산능력을 실제로 확대하지 않고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Millennium Chemical은 2002년 자본지출을 7000만달러로 28% 감축했으며 예산의 70-80%를 TiO₂ 사업의 보수에 투자했다. Lubrizol도 자본지출 36% 늘려 대부분을 IT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.

Rohm & Haas도 2002년 자본지출금 3억5000만달러 가운데 20%를 ERP에 투자하고 80%를 보수, 환경, Safety 코스트에 투자했다. Crompton은 2002년 예산인 1억1000만달러의 약 80%를 보수사업에 투자했다.

Salomon Smith Barney에 따르면, 자본지출은 코스트 절감 및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Great Lakes Chemical, Crompton, Rohm & Haas와 같은 기업들이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자본을 경영하고 부채 및 지분매수에 따른 투자자본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

Great Lakes Chemical은 2002년 자본지출을 절반에 가까운 9500만달러로 감축해 절반 정도를 보수 및 유지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생산량 및 프로세스 개선에 투자했다. Great Lakes Chemical은 프로세스 개선에 투자한 자본의 40% 정도를 폴리머(Polymer)첨가제 부문에 투자해 브롬(Bromine) 프로세싱의 부식성 상쇄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.

Engelhard도 1억4000만달러 예산의 대부분을 보수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반면, Dow 및 Eastman은 자본투자를 확대했다. Dow Chemical은 2002년 자본투자금을 2001년과 같은 16억달러로 유지했고 Eastman은 2억9200만달러로 36% 확대했다.

Dow는 텍사스주의 Seadrift & Texas City 플랜트의 에틸렌(Ethylene) 설비를 대체해 세계규모의 신규 Cracker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며, Eastman Chemical은 2002년 예산금 2억9200만달러의 80%인 2억3500만달러를 미국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5/19>